

## 三陰三陽의 개념에 따른 手型的 연구

鄭鉉錫 · 洪元植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Abstract>

*Sam-Eum-Sam-Yang*(三陰三陽)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ual schemes used in Oriental Medicine. In this dissertation, the author applied this concept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various forms of human hands, and tried to find out each individual's character traits according to the insights gained from that classifi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Gweol-Eum*(厥陰) Hand Type is characterized by softness, shortness and plumpness. The hand gets short and plump, because the energy of generation, as the flow of *Gi*(氣) testifies in case of the *Gweol-Eum* phase, is strong, but it cannot be flowering its power onto the outside world. The form of the hand is thus shaped in analogy to the energy flow. (7.1%)

2. *So-Eum*(少陰) Hand Type is presented as straightforward, knots being ample. This is fit to the image of *So-Eum*(少陰)'s propensity to expand. (28.6%)

3. *Tae-Eum*(太陰) Hand Type shows itself as long fingers with wide, flat fingernails. It mirrors the image of *Tae-Eum*(太陰) that grows to the limit, but couldn't go beyond it. (6.1%)

4. *So-Yang*(少陽) Hand Type is also straightforward but it tries to return to itself, with knots being big, but distal ends being sharp. (6.1%)

5. *Yang-Myung*(陽明) Hand Type obviously shows the image of reservation, the thickness of the whole length of one finger being uniform and straight. The distal end gets sharp and the skin has dark hue. (33.7%)

6. *Tae-Yang*(太陽) Hand Type is the type showing the well-reserved *Yang-Gi*(陽氣), the creases on the knuckle being pushed back toward the wrist joint. The flesh is ample and soft. The difference from the *Gweol-Eum* Type is that in this type, softness is the major characteristic and elasticity is less apparent than in *Gweol-Eum*. (18.4%)<sup>7</sup>. *Tae-Eum* Type was the most assertive while the *Tae-Yang* type was the least. ( $p < .05$ ). *So-Yang* was the most easily-motivated while the *Gweol-Eum* was the least. ( $p < .01$ ) The most considerate group was the *So-Eum* Type, and *So-Yang* was the least considerate. ( $p < .005$ )

The connection between the aspects of *Sam-Eum-Sam-Yang* and the individual's character traits deduced from their hand types, seems meaningful according to this author's study.

Key words: *Sam-Eum-Sam-Yang*, Hand type, Character traits.

## 1. 序 論

韓醫學은 각 개인의 體質의 특성을 중시하여 각각의 人體가 조금씩 다른 生理的 病理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른바 “因人制宜”라고 하는 것이다. 『黃帝內經靈樞』의 「陰陽二十五人」<sup>1)</sup>과 「通天」<sup>2)</sup>篇에서 이미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生理·病理 規律이 존재함을 말하고 있으며, 『東醫寶鑑』에서도 동일한病症에 대해 肥人·瘦人에 따라 그 치료법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朝鮮末期에 이르러 『東醫壽世保元』에서 四象體質의 各別함을論하는 것으로 歸結된다. 人體를 劃一的으로 同一視하지 않고 개개인마다 각기 다른 生理的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八體質論, 64體質論, 形象醫學 역시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疾病을 診斷하고 治療함에 있어서 개개인의 體質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耳目口鼻를 관찰하거나, 뼈의 大小長短을 관찰하거나, 脈을 관찰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왔다.

본 논문에서는 개개인의 기질적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手型을 선택하였다. 손은 人體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여 陰陽交流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곳이니, 五輸穴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결국 손의 미묘한 형태적 차이는 全身經絡의 六氣의 偏差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舍岩鍼法이나 八體質鍼法이 바로 이러한 五輸穴의 特性을 이용하여 전신의 질환을 치료해 내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또 손은 항상 밖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韓醫學에서 三陰三陽이 활용되는 곳은 十二經脈의 名稱, 『傷寒論』의 病證의 分型, 五運六氣에서 六氣之標, 『內經』에서 雜病의 分類, 그리고 脈象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sup>3)</sup> 대체적으로 보아, 韓醫學의 여러 개념 가운데 外形의 特徵을 가장 잘 개괄한 것이 바로 三陰三陽이다.

天地自然은 太極이 근본이며, 陰陽五行으로作用한다. 즉 태극이 體(本체)가 되고 陰陽五行이 用(작용)이 된다. 『黃帝內經素問·天元紀大論』에서 “무릇 五運과 陰陽은 天地의 道이며 만물의 母리이고 變化의 부모이며……(夫五運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sup>4)</sup>라고 하였으니, 陰陽五行이 곧 自然界 만물이 運動變化하는 法則임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陰陽五行은 현실 세계에서 天地로 나뉘어 三陰三陽과 五運의 형태로 발휘된다. 五運은 곧 하늘의 五行을 말하고, 三陰三陽은 땅의 六氣를 말하니, 韓東錫은 “五行의 法則이 지구에서 행해질 때에는 五行은 반드시 六氣로 變化하여 가지고 주체의 역할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sup>5)</sup>라고 했다. 결국 지구상의 모든 만물은 六氣의 영향하에서 生成, 變化한다고 본 것이다. 즉 天地萬物의 生成, 變化에 있어서 天의 五運은 原因을 제공해줄 뿐이며, 실제로는 땅의 六氣에 의해 生成, 變化의 임무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1年の 變化 속에서는 초목이 春夏에 生命의 分열을 했다가 秋冬에 다시 生命을 통일하는 모습에서 六氣의 作用을 관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三陰三陽의 개념이 나온다. 즉 三陰三陽은 六氣의 標가 되고, 六氣는 三陰三陽의 本이 되니, 三陰三陽은 곧 天

1)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4, p274.

2) 洪元植 編, 前揭書, p302.

3) 尹楊烈, 三陰三陽에 관한 研究, 醫哲學, 大田,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2002, p332.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4, p233.

5)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杏林出版, 1985, p96.

면의 六氣의 作用이 겉으로 드러나는 變化象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人體의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人體 내부의 變化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손의 형태를 분류함에 있어서 三陰三陽은 아주 적절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著者는 韓醫學의 가장 중요한 사유도구 중 하나인 三陰三陽의 개념을 이용하여 손의 형태를 분류하여 個個人의 陰陽의 特性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物質의 變化를 가장 잘 드러내는 三陰三陽의 개념을 이용하여 손의 형태적 특징을 구분해 보는 것은 三陰三陽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形而上學的인 陰陽과 三陰三陽의 개념을 손이라고 하는 物質에 對比시킴으로써 形而上學的의 概念을 形而下學的의 物質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氣의 多少에 따른 三陰三陽의 개념을 정리하고, 三陰三陽에 내재되어 있는 六氣의 特性을 상호 연결하였으며, 나뭇잎의 형태적 변화에 적용하여 三陰三陽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둘째, 手相學의 한 부분인 手型學에서 손의 형태에 따라 나누는 방법과 東洋手相學과 西洋手相學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셋째, 三陰三陽의 이론에 따라 手型을 구분하고, 각각의 手型에 따른 특성들을 분석하여 당위성을 찾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手型과 性格 사이의 상관성을 조사 분석해보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三陰三陽

陰陽의 개념은 최초로 日光의 向背를 가리켰는데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一切 自然

現象의 變化를 모두 陰陽消長의 결과로 보았으며, 陰陽 자체도 항상 끊임없이 消或長의 變化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sup>6)</sup> 이러한 陰陽의 觀點은 「黃帝內經」에 잘 나타나 있는데,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陰陽이란 하늘과 땅의 도리요, 萬物의 버리며 變化의 부모이며 낳고 죽이는 근본과 시작이며 神明의 곳집이니,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근본에서 구해야 한다.”<sup>7)</sup>라고 하여 병을 다스리는데 陰陽을 파악함이 그 근본이라 하였다. 「生氣通天論」에서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陰陽의 理致를 說하였으며, 「金匱真言論」에서는 陰陽五行의 理致를 說하였으며, 「陰陽離合論」에서는 三陰三陽의 相互關係를 논술하는 등 「內經」의 全篇에 걸쳐 동양의학의 自然觀과 人體의 生理 病理에 대한 認識 및 診斷·治療·藥物 등에 대한 이해를 모두 陰陽五行으로 설명하였다.<sup>8)</sup> 「周易·繫辭傳」에서는 “一陰一陽之謂道”라 하였으니, 陰陽의 變化運動이 萬物의 變化原理임을 말한 것이다.

동양의 哲學과 醫學에서 이처럼 중요한 사유도구인 陰陽哲學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太極인데, 太極이란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극히 클 수 있는 바탕을 지니면서도 극히 작은 象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sup>9)</sup> 이러한 太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陰陽이니, 모든 만물은 결국 陰陽의 세력다툼의 결과로 다양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太極에 나타난 陰陽은 극히 含蓄의 人 象을 담고 있는 것으로, 현실화되어 나타난

6)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4, p27.

7) 「陰陽應象大論」: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於本”(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慶熙大學校出版部, 1998, p73.)

8) 洪元植, 前揭書, p65.

9) 韓東錫, 前揭書, p284.

사물의 外形이나 變化現狀을 설명하는 데는 조금 더 부연된 陰陽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三陰三陽인데, 그 이유는 삼이 담고 있는 字意에서 파악할 수 있다. 삼에 대해 『說文解字注』에서는 “三, 數名. 天地人之道也(삼은 數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과 사람의 道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하늘은 陽의 代表象徵이며, 땅은 陰의 代表象徵이고, 사람은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萬物의 代表象徵인 것이다. 陰陽의 均衡對立 상태인 太極은 삼이라는 數의 變化(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이르러 現狀化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삼의 의미는 老子의 『道德經』에도 나타나 있는데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이 그것이며, 『天符經』에서는 “一析三極無盡本”이라고 하여 위에서 말한 것들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삼이라는 수는 사물이 現狀化되어 나타날 때 根本이 되는 의미가 있으며, 崔<sup>10)</sup>는 “삼은 作用, 應用, 活用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말은 결국 陰과 陽 각각의 개념 또한 現實化되어 나타난 사물들에 대해서는 삼이라는 수의 작용에 따라 三陰과 三陽으로 敷衍되어야 현실화된 개념 설명이 가능해 진다는 의미가 된다.

### 1) 氣의 多少에 따른 三陰三陽

三陰三陽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며, 「素問」, 「陰陽離合論」과 運氣七篇 등에 나오는 三陰三陽은 명칭은 같으나 상호 대칭이나 변화 순서 등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論者が 말하고자 하는 三陰三陽의 개념은 運氣七篇에 나오는 主氣·客氣의 개념과 비슷하나, 여기에서는 客氣의 변화 순서를 따르기로 한다. 왜냐하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物質變化의 개념에 가장 적

합한 三陰三陽의 개념을 이용하여 손의 형태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五行과 六氣의 관계에 대해 韓<sup>11)</sup>은 “五行이란 것은 虛空에 있는 五行星團이 각각 자기의 光을 發射하는 바, 이 光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성질 그대로의 光인 것이다. 우주간에는 이 氣運들이 彌滿하고 있는데 이 氣運이 運動을 시작하면 五運으로 變化하는 것이다. 그러나 五運의 氣化作用이 지구 주위에 집중하게 되면 지구에서는 이것이 六氣로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三陰三陽은 바로 이같은 六氣의 表象이다.

그런데 왜 形體의 變化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三陰三陽은 厥陰→少陰→太陰→少陽→陽明→太陽의 순서를 따르는 것인가? 이는 “一陰一陽之謂道”라고 하는 『周易·繫辭傳』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宇宙萬物이 결국은 陰과 陽이 어우러져 벌이는 끝없는 세력다툼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收縮하여 形을 유지하려는 陰과 膨脹하여 生命力을 擴張하려는 陽 사이의 均衡된 循環運動의 결과 厥陰→少陰→太陰→少陽→陽明→太陽의 順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陰의 운동은 厥陰→少陰→太陰의 순서로 나타나고 陽의 운동은 少陽→陽明→太陽의 순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陰의 운동이 현상계에서 厥陰으로 그 시작을 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는 한껏 凝縮되어 있던 內部の 生命力이 비로소 운동을 시작하는 象이 厥陰의 象과 같기 때문이다.

厥陰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內부의 生命力이 강력한 陰의 壓迫을 뚫고 나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形體의 始作은 바로 厥陰의 象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厥陰의 象에 대해 韓<sup>12)</sup>은 “그런즉 厥陰이란 것은 生하려고

10) 崔載忠, 天符經과 數의 世界, 서울, 한민족, 1986, p232.

11)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杏林出版, 1985, p112.

12) 韓東錫, 前掲書, p118.

하지만 그 기운이 短하여서 아직 生할 수 없는 것을 厥陰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때가 도래하여 강한 純陰之氣를 뚫고 活動을 始作하려는(힘이 아직 부족한) 生命力的 形象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이제 막 새 生命이 세상에 모습을 나타낸 그 시기인 것이다.

다음으로 少陰은 陰의 收縮力을 밀어내기 시작한 內部的 陽이 힘을 얻어 더욱 밀어내니 形이 무럭무럭 커가는 시기에 해당된다. 少陰 君火에서 “君”이란 뜻은 主動力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實力 있는 位<sup>13)</sup>이니 인생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거침없이 成長해가는 시기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 다음은 太陰이니 그 의미는 지극히 작으면서도 지극히 크게 나타나는 陰이라는 것이다. 즉, 陰形을 擴張시키는 陽氣의 힘이 가장 멀리까지 가는 시기이니, 外形을 보면 지극히 크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러한 形을 감싸는 陰은 主導權을 잃으려하는 象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인생의 20대로 形이 완전히 分化되어 가장 華麗한 外形을 나타내는 시기라 하겠다.

여기까지 陰의 主導權 運動이 끝나게 되는데, 外形은 成長해 가면서 陰形이 커가는 시기이지만 내부적으로는 陽氣의 힘이 점점 커가는 반대의 현상을 담고 있으니, 이것은 陰陽의 體用관계이며, 形氣 상호간의 절묘한 均衡이라 하겠다. 즉, 겉으로는 陰이 커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에서는 陽이 커가는 것이다. 반대로 三陽의 主導權하에서는 겉으로는 陽이 커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陰이 커가는 것이다.

그 다음은 少陽이니 이제부터는 外形이 커가는 시기가 끝나고, 內氣가 凝縮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三陽 각각의 陽의 크기를 나타내는 象은 얼마나 강력하게 內氣가 응

축되었는지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少陽은 三陽의 始作으로 內氣가 凝縮되기 시작하였으니 外形은 가장 화려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內氣의 凝縮이 시작된 것이며, 인생에 있어서도 生命 현상체로서는 下降曲線을 그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30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少陽에 대해 韓<sup>14)</sup>은 “相火에 이르게 되면 實力은 弱화되었지만 外勢는 가장 旺盛한 火로 변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은 陽明이니 少陽에서 凝縮되기 시작한 內氣가 陽明의 때에 이르면 더욱 強力하게 凝縮이 된다. 이 시기는 外形이 본격적으로 시들기 시작하는 때이며 인생 40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비록 外形은 시들더라도 內部的으로는 充實하게 生命에너지가 凝縮되는 시기로, 이에 대해 韓<sup>15)</sup>은 “陽明은 物質面에서 보면 收斂하여서 燥하게 하는 데 불과하지만 精神面에서 보면 모든 私慾과 邪惡의 발동을 버리고 精神을 收斂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明이 生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孔子가 四十을 不惑이라고 한 것 또한 이러한 인생의 시기를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은 太陽이니 三陽運動의 마지막이며 生命에너지가 가장 強力하게 凝縮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外形이 완전히 시드는 시기로 인생으로는 50代 以後가 해당된다 할 수 있다. 비록 外形은 완전히 시들지만 生命에너지는 가장 強力하게 凝縮되는 시기이니, 輪廻的인 東洋의 人生觀으로 볼 때 다음 生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형태의 生命 현상인 것이다. 모든 物質은 가장 단단하게 凝縮이 되어야 흩어지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듯이, 生命에너지 또한 凝縮이 잘 되어야 形이 消滅할 때 잘 移動하여 다음 生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13) 韓東錫, 前揭書, p119.

14) 韓東錫, 前揭書, p121.

15) 韓東錫, 前揭書, p121.

## 2) 三陰三陽에 따른 잎의 形態變化

形而上學的인 三陰三陽의 개념을 形態의 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나뭇잎의 變化狀일 것이다. 왜냐하면 植物은 氣立之物이기 때문인데, 氣立之物이란 외부환경의 기후변화에 따라 形象을 그대로 변화시켜 나타내는 것이란 뜻이다. 즉 植物은 風·寒·暑·濕·燥·火 六氣의 변화에 따라 잎의 모양이 변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는 1년중 三陰三陽의 변화에 따라 잎의 形象이 파노라마처럼 변하면서 三陰三陽의 변화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봄에 새싹이 돌아서 여름과 가을을 거쳐 겨울에 시들어 떨어질 때까지 잎이 변화하는 形象을 관찰한다면, 三陰三陽의 개념이 각각 形象化되는 모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차례 또한 왜 그러한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봄에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나오는 모습을 보자. 새싹이라 함은 겨우내 메마르고 얼어있던 나뭇가지가 봄의 따뜻한 기운을 따라 새로운 잎을 튀어나는 것으로 1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새 生命의 始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싹이 바로 厥陰의 象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니, 그 이유는 새싹이 가지를 뚫고 나오는 모습이 굴바위 밑에서 새 生命이 기지개를 펴면서 역출하려한다는 厥陰과 같은 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뭇가지에서 막 나와 매우 부드럽으면서 채 퍼지지도 않은 잎의 모양이 厥陰의 形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잎이 짙 퍼져서 마음껏 자라는 시기인데, 이 때는 少陰의 象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이유는 少陰은 厥陰에서 시작한 生命에너지가 더욱 활발히 움직이며 擴張해가는 모습이 마치 陰이 커가는 것처럼 보여 붙여진 것으로, 봄철의 새싹이 짙 퍼져 쪽쪽 커가는 모습과 같은 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잎이 다 자라서 더 이상 자랄 수도 없으며 더 이상 색이 짙어질 수도 없는 현

상을 나타내는 시기로 太陰의 象을 드러내는 시기이다. 이 때는 外形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시기로, 厥陰에서 시작한 三陰의 운동이 少陰을 거쳐 가장 큰 太陰으로 변한 것과 같은 상을 보여준다. 이 때까지가 三陰의 시기로 겉으로 보기에 나뭇잎이 성장해 가는 모습이 陰이 成長해가는 것과 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內部の 生命에너지가 마음껏 커나가는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太陰의 다음은 이제까지 팽창하던 生命에너지가 凝縮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 三陽運動이 바로 그것이다.

長夏之節에 마음껏 자란 잎은 가을에 접어들면서 잎의 말단 부분의 색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마음껏 팽창을 하던 內陽이 收斂을 始作하는 모습으로, 이 때가 바로 少陽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韓<sup>16)</sup>은 “少陽은 綜合의 最初의 단계이므로 ‘少’字를 놓은 것이며, 이것은 바로 陽의 創造過程을 표준으로 하여 少陽이라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은 잎이 완전히 붉고 노란색으로 단풍이 든 시기로 이 때가 바로 陽明의 象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시기이다. 그 이유는 陽明은 三陰運動에서 發散을 하던 陽이 少陽을 거치면서 강력하게 收斂이 되는 시기로, 이는 三陰運動에서 形을 만들어 마음껏 커가던 잎이 少陽을 거치면서 색이 완전히 변하는 것과 같은 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단풍잎들은, 식물에 있어서 잎으로 가던 陽이 완전히 收斂되어 가지로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것이 바로 陽明이 나타내고 있는 象인 것이다.

그 다음은 단풍잎마저 떨어져버린 시기로 太陽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그 이유는 太陽은 陽이 완전히 凝縮되는 시기로 陽明에서 가지로 수렴되었던 陽이 뿌리까지 응축이 되는 모양인데, 그나마 陽明의 시기에 가지에 붙어 있

16) 韓東錫, 前掲書, p121.

던 일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잎의 성장변화와 三陰三陽의 운동은 生命에너지에 해당하는 내부의 陽이 陰이라고 하는 껍질을 쓰고서 發散과 綜合을 반복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3) 三陰三陽과 六氣의 관계

韓醫學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넓게는 天文·地理·人事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고, 좁게는 人間이라는 生命體와 인간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대상들일 것이다. 수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韓醫學이 이러한 대상을 파악하는 도구로 陰陽五行을 주로 사용해 왔다는 것 또한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이처럼 陰陽五行의 개념자체가 森羅萬象의 形象과 運動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陰陽五行의 개념이 有形과 無形の 兩面性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陰이다 陽이라고 부르는 것은 發散力과 綜合力 사이에 어느 쪽이 主導權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부르는 것이지 陰이나 陽이 獨斷적으로 存在할 수는 없는 것이다. 五行 역시 마찬가지로, 木·火·土·金·水의 이름들 역시 現象계에서 獨斷적으로는 存在할 수 없으며, 發散力과 綜合力과 調和力의 정도에 따라 각각 이름이 붙여진 것 뿐이다. 이런 개념을 한마디로 體用概念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陰이라고 규정하는 대상은 發散하여 氣를 擴張하려는 陽과 綜合하여 形을 유지하려는 陰 중에서 陰의 관점에서 보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다른 관점에서 보면 陽이라고도 규정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五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결국 陰陽五行이란 形以下와 形以上을 綜合한 形과 象을 모두 代表 또는 象徵하는 符號인 것이다<sup>17)</sup>. 三陰三陽과 六氣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體用概念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內經』 運氣篇에 잘 설명되어 있다.

『黃帝內經』 運氣篇에서는 三陰三陽과 六氣의 상호관계를 標와 本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즉 厥陰·少陰·太陰·少陽·陽明·太陽은 標가 되고 風·熱·濕·相火·燥·寒은 本이 되니, 三陰三陽은 生命體에 있어서 外部로 드러나는 形象을 표현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天元紀大論』에서는 “厥陰의 위에는 風氣가 주관하고, 少陰의 위에는 熱氣가 주관하고, 太陰의 위에는 濕氣가 주관하고, 少陽의 위에는 相火가 주관하고, 陽明의 위에는 燥氣가 주관하고, 太陽의 위에는 寒氣가 주관하니 이른바 本이란 것이니, 이를 일러 六元이라고 한다(厥陰之上, 風氣主之. 少陰之上, 熱氣主之. 太陰之上, 濕氣主之. 少陽之上, 相火主之. 陽明之上, 燥氣主之. 太陽之上, 寒氣主之. 所謂本也, 是謂六元).”이라 하여 六氣가 本이 되며 이것을 六元이라 한다고 하였다. 『五運行大論』에서는 이러한 六氣의 無形의 개념이 五行을 포함한 有形의 개념으로 바뀌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寒暑燥濕風火의 六氣가 사람에게 승해지는 모양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답하기를 東方에서는 風이 生하니 風은 木을 生하고 木은 酸味를 生하고 酸味는 肝을 生하며... 南方에서는 熱이 生하니 熱은 火를 生하고 火는 苦味를 生하고 苦味는 心을 生하며... 中央에서는 濕이 生하니 濕은 土를 生하고 土는 甘味를 生하고 甘味는 脾를 生하며... 西方에서는 燥가 生하니 燥는 金을 生하고 金은 辛味를 生하고 辛味는 肺를 生하며... 北方에서는 寒이 生하니 寒은 水를 生하고 水는 鹹味를 生하고 鹹味는 腎을 生하며...(帝曰: 寒暑燥濕風火, 在人合之, 奈何...岐伯曰: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南方生熱, 熱生火, 火生苦, 苦生心...中央生濕, 濕生土, 土生甘, 甘生脾...西方生燥, 燥生金, 金生辛, 辛生肺...北方生寒, 寒生水, 水生鹹, 鹹

17) 韓東錫, 前揭書, p52.

生腎...)가 그 내용이니, 六氣는 五行과 같은 象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三陰三陽이라는 外形 속에서 生命維持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內氣의 屬性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三陰三陽과 六氣·五行의 관계가 外形·內氣의 관계가 되는 것은 陰陽의 體用關係와 같은 개념으로 生命現狀의 發生維持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天元紀大論」에서는 “天에 있어서는 氣가 되고 地에 있어서는 形을 이루니 形과 氣가 서로 습하여 萬物이 化生하는 것이다(在天爲氣, 在地成形, 形氣相感而化生萬物).”라고 하였으니, 三陰三陽은 形을 이루는 개념이며 六氣는 氣를 이루는 개념과 같은 것이다.

위와 같이 볼 때 三陰三陽과 六氣·五行 개념의 상호간에는 “厥陰-風木, 少陰-君火, 太陰-濕土, 少陽-相火, 陽明-燥金, 太陽-寒水”의 관계로 부합이 되며, 三陰三陽은 外形的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며 六氣는 三陰三陽 안에서 활동하는 에너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2. 手型學

수천년 전부터 동양에서는 四柱 觀相과 같이 陰陽五行의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타고난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들이 발전해 왔다. 이는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환경에서 스스로의 生命과 種族을 잘 보존하기 위한 필연적인 자구책의 하나로 동서양 어디를 막론하고 비슷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 手相學은 이러한 運命統計學의 대표적인 분야로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발전해 왔으며, 그 내용은 크게 손의 생김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는 手型學과 손바닥에 새겨진 손금을 보고 판단을 하는 掌線學으로 나뉘어져 있다. 手型學은 掌線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손의 형태를 보고서 각각의 手型에 대한

기질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掌線學은 주로 손바닥에 새겨진 손금을 運命線·感情線·成功線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線의 象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들을 판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三陰三陽의 개념을 이용하여 手型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기질적 特性을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연구대상을 手型으로 함을 밝혀둔다. 따라서, 먼저 동양과 서양에서 手型을 나누는 방법을 파악하고 각각의 手型이 뜻하는 기질적 내용을 살펴보고 하겠다.

### 1) 西洋手型學의 분류법

西洋手相學의 시작은 기원전으로, 피타고라스의 人相과 手相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아낙사고라스는 “인간의 손은 運命을 말하고 또 疾病을 곧 알 수 있는 不可思議한 神秘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은 오직 그 훌륭한 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수상술도해입」은 오늘날 手相術의 基盤을 구축해 놓았다. 그 후 중세기 프랑스의 테바도르는 「손의 신비」를 지었으며 “사람이 생각하는 속도와 양이 손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sup>18)</sup>고 하였다. 또 프랑스의 타르팡티니(D'Arpentigny)는 손의 형태를 7가지로 분류<sup>19)</sup>하였는데,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手相學 책의 상당수가 이 형태를 따르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미국의 한 통신사가 “手相學은 科學이다. 우리들의 손은 얼굴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움직임을 폭로할 수 있다.”고 했으며, “근래 手相을 연구하는 의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폐병·심장병...간장병...위장병 등의 질환을 손가락, 손톱 그리고 손금 등

18) 曹誠佑, 手相大典, 서울, 明文堂, 1993, pp48-52.

19) 鄭淳澈 譯, 完全手相獨習, 서울, 삼원문화사, 1998, p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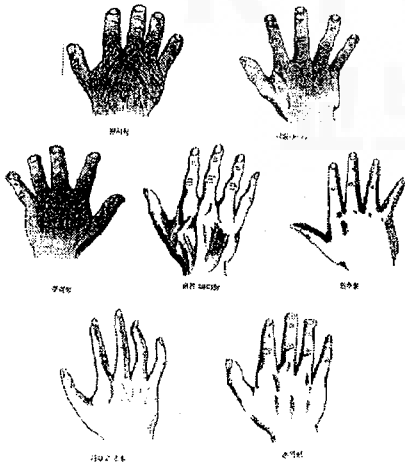
을 통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 醫學과의 연관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sup>20)</sup>

여기에서는 프랑스의 타르팡타니가 분류한 7가지 手型에 대해 알아 볼 것이며, 그 내용은 시카타보오요(四方望洋)가 지은 『手相獨習』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1) 原始型

손의 外形이 투박하고 손바닥이 크고 두터우며 단단하고 목직해 보인다. 손가락은 짧고 끝은 뚱뚱하며 굵고, 손톱이 짧으며, 손바닥에는 손금이 극히 적다. 이와 같은 타입의 사람은 食欲과 性慾은 旺盛하지만 非理知的이며, 깊은 애정도 없고, 일시적 衝動으로 행동하며, 체력을 사용하는 肉體的 勞動 이외에는 별로 적당치 않은 사람이다.

(2) 角型 (實用型, 實際型)



【그림 1】 7가지 手型

손바닥 전체의 형태는 대체로 四角型이며

손가락도 밑에서 끝까지의 굵기가 거의 같으며, 끝은 대체로 角形이다. 또, 손가락의 제2관절이 약간 굵은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은 타입의 사람은 秩序, 慣習, 規則 등을 잘 지키고, 자기의 權利를 주장하고, 主義 主張과 남과의 約束, 友情 등에 충실하며, 家庭을 소중히 여기고 理想的이며 意志가 강하고 健實하며 實用的인 사업에 열중하는 형이다. 物質的으로 成功할 수 있는 타입의 사람이지만 별로 感情的은 아니다.

(3) 주격형 (活動型)

손가락 끝이 옆으로 넓게 퍼진 것이 특징이다. 이런 타입의 사람은 活動的이며 獨創的인 研究와 새로운 主義나 思想을 제창하며 發明 등을 좋아한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冒險心이 강해 개척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 獨立心이 강하고 習慣과 規範을 중시하지 않으며 사람들로부터 별난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도 많다.

(4) 굵은 마디형 (節太型, 哲學型, 思索型)

손 전체가 가늘고 손가락이 길며 마디가 굵고 뼈가 단단하다. 손가락 끝은 약간 가늘고 대체로 손톱이 길다. 이 타입의 사람은 知識慾이 왕성하고 思考力이 풍부하며 理論的이므로 學問이나 그 밖의 精神的 方面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 財物이나 그 밖의 世俗的인 慾望은 적지만 才能이 많으므로 地位와 名譽와 財物을 얻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은 寡黙하고 神經이 過敏하므로 약간 어두운 성격이 있는 결점이 있다.

(5) 圓錐型 (藝術型)

손 전체가 통통하고 부드러우며 손바닥은 손가락 쪽이 약간 좁다. 손가락은 밑부분이 굵고 마디도 굵지 않아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져서 손가락이 끝이 가늘고 손톱은 길다. 이와 같은 타입의 사람은 理性보다 感情이 풍

20) 曹誠佑, 前掲書, p52.

부하므로 理論的인 學問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 대신 融通性이 있고 불평불만이 없으며 明朗하고 活潑하며 快樂을 즐기는 성격으로 社交的이다. 예술가가 되는 하나의 요소인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갖고 있으나 이같은 타입의 사람에게 흔히 있는, 忍耐力이 부족한 점, 끈기가 없는 점, 實踐力이 부족한 점, 부지런하지 못한 점 등의 약점을 극복해야만 비로소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6) 가늘고 긴 형 (細長型, 精神型, 心性型, 敏感型, 空想型, 靈的인 型)

손 전체가 가늘고 부드러우며, 손가락도 밑에서 끝까지 가늘다. 마디도 굵지 않고 매끈하며 손끝이 뾰족하고 손톱이 긴 타원형이다. 매우 아름답고 약해 보이는 손이다. 이와 같은 타입의 손을 가진 사람은 그 손과 같이 암전하고 조용하며, 또 사람을 지나치게 믿는 경향이 있고, 저항할 힘이 약하므로 불량한 사람들의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쉽다. 매우 敏感하고 直感力이 있어서,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한 여러 가지 肉感이 발달되어 있다. 몸이 약한 편이어서 實用的, 事務的, 論理的인 일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美的인 것, 理想的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므로, 詩人, 혹은 思想家로서 세상에 큰 자극을 주는 사람이 이런 타입의 사람 중에서 많이 나타난다.

(7) 混合型

이 타입은 그림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 형태의 손가락이 혼합되어 하나의 손을 구성한 타입이다. 이 그림의 손은 食指와 小指는 圓錐型, 中指는 角形, 藥指는 주걱형으로 혼합된 것이다. 여러 형태의 손가락이 혼합된 것과 같이 그 사람의 성질과 재능도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어 多才 多能하다. 이 타입은 어떠한 일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

2) 東洋手型學의 분류법

東洋의 手相起源은 春秋戰國時代로 생각되며, 학술적 체계를 잡은 것은 唐나라 때로 볼 수 있다. 즉 중국 五岳의 하나인 華山 石室에서 道를 닦아 人相과 手相術에 대한 진수를 창안한 麻衣道士에 의해 人·手相術이 체계가 잡힌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麻衣相法이다. 이외에도 神相鐵關刀相法과 金面玉掌相法의 유풀을 들 수 있는데, 韓·中·日 세 나라에서는 麻衣相法이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五行의 개념을 手型에 잘 적용시킨 玉掌相法을 기준으로 하고, 장요문·사토로쿠류가 지은 '手相의 判斷法'을 주로 인용하도록 하겠다.

(1) 曲直型 - 木型의 손

木型의 手型이라는 것은, 손가락 전체가 관절이 발달하고 기다란 손을 말한다. 이 타입의 특징은 관절이 굵어서 손가락을 모아서 펼치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틈이 생기며, 또 손등에 힘줄이 서고, 拇指가 크며, 손바닥에 살이 없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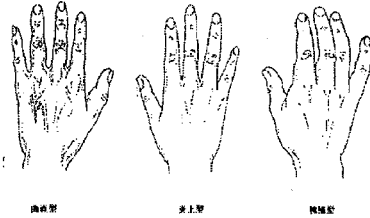
두뇌가 明哲하고 思慮가 깊고 反省하는 마음도 풍성하지만, 얼마간은 孤獨한 경향도 있으며, 精神的 분야에 깊은 관심이 있다. 그 행동성은 소극적이며, 진취성이 부족하여 사회적인 활동에는 부적합한 점이 많은 것 같다.

(2) 炎上型 - 火型의 손

火型의 손이라는 것은, 손을 전체적으로 볼 때 폭보다 길이가 긴 형의 손으로, 손바닥의 살이 부드러운 감이 있으며, 손가락은 뿌리 쪽이 굵고, 제2指 관절에서 끝으로 갈수록 가늘고, 손끝은 둥근 것이 일반적이다. 또, 손가락 관절이 비교적 유연하며 손가락이 뒤로 젖혀진다.

감상력이 예리하고 直感이 먼저 오는 사람이지만, 반면에 사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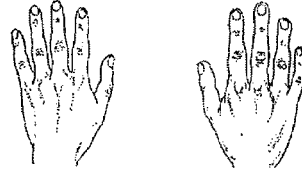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想像力이 풍부하고,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고, 또 일을 질서있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土型手

水型手

木型手



火型手

金型手

【그림 2】 5가지 手型

(3) 稼穡型 - 土型의 손

土型의 손이라는 것은 손가락이 굵고 짧으며 두툼한 손바닥을 말한다. 전체적으로 두터운 감이 있다. 손가락 끝은 모가 나고, 살결이 매끄럽고, 한눈에 품위가 없는 손이다. 稼穡型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은, 무특징이라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꼬집어서 말한 만한 특징이 없는 평범한 점이 특징이 되는 셈이다.

(4) 從革型 - 金型의 손

金型의 손이라는 것은, 손 전체가 네모꼴로 모난 감이 있으며, 손가락 관절이 비교적 가늘고 약한 편이다. 손가락은 뿌리에서 끝까지 굵기가 거의 같다. 손바닥도 거의 네모꼴이며, 살도 탄력이 있고 단단하며 피부도 거친 감이 있다. 대단히 現實的이다. 옛 慣習이라든가 秩

序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현실로서 肯定的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분석하며 의심하지 않는다.

(5) 潤下型 - 水型의 손

水型의 손이라는 것은, 손바닥이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는 손을 말한다. 손가락 끝은 넓직하게 등글며, 손가락 뿌리 쪽이 끝과 같은 폭이거나 또는 약간 가는 손이다. 사물을 깊이 관찰하지 않고 行動을 먼저 하는 성격의 사람이다. 獨立性和 進就性이 풍성하지만, 사고력이 결핍된 단점이 있다.

3. 三陰三陽의 개념에 따른 手型的 분류

三陰三陽은 사물의 外形變化를 파악하는데 가장 적당한 사유도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三陰三陽의 개념을 이용하여 手型이 갖는 象을 파악해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 韓醫學에서 보는 人體는 小宇宙이며, 인체의 각 부분들 또한 소우주로서 전체의 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관심을 갖지 않고 손을 본다면 그저 물건을 잡고 만지는 등 단순한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달려있는 신체 기관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人體는 小宇宙”라는 韓醫學의 관점에서 볼 때 손 또한 소우주로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전체 우주를 나타내주는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手型的 상을 三陰三陽이라고 하는 사유도구로 파악할 수 있다면, 각각의 手型이 지닌 내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醫學의 측면에서 볼 때 각각의 臟腑特性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기존의 韓醫學에서는 얼굴의 相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며, 手型을 파악하는데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論者는 三陰三陽의 개념을 手型과 연결하여, 각각의 手型이 지닌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三陰三陽이라 함은 外形의 變化를 나타내주는 상이지만, 그 內面에는 六氣·五行이 감추어져 안에서 활동하는 內氣의 變化狀도 함께 나타내 주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三陰三陽의 개념을 手型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각각의 手型을 지닌 사람의 내기의 변화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三陰三陽의 經絡運動이 五行·六氣의 內臟運動을 대변하듯이, 手型의 三陰三陽의 分析은 五臟·六腑의 臟腑特性을 파악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 1) 手型을 기질판단의 근거로 삼는 이유

手相에 관한 세계 최초의 기록은 『구약성서·욥기 제37장 7절』에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신은 사람의 손에 符號 혹은 印章을 두었으니, 이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職分을 알려주기 위함이다.”<sup>21)</sup> 즉 사람 손의 形相과 掌線이 그 사람의 모든 특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서양에서 손의 形相과 掌線을 연구하는 분위기가 널리 형성된 것은 바로 이러한 성서의 기록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韓醫學의 관점에서 볼 때 손은 어떤 것이며, 陰陽五行의 五行으로 볼 때 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黃帝內經』 이래로 현재까지 韓醫學의 가장 중요한 思惟도구는 陰陽五行이며, 그 이유는 陰陽五行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비롯한 宇宙萬物의 形象과 變化理致를 논하는 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 말은 결국 宇宙萬物은 陰陽五行의 이치에 따라 형성되었다는 것이며, 그 시작이 陰陽五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陰陽과

五行 중, 陰陽이라 함은 太易·太初·太始·太素를 거쳐 만들어진 太極을 구성하는 純粹原質로, 形象化되기 이전의 씨앗과 같은 상태의 개념이며, 五行이라 함은 陰陽의 分合作用에 의해 발생한 다섯 개의 새로운 성질로, 陰陽이라는 外形 속에서 활동하는 內氣 개념인데 이 역시 形而上學的인 개념이 강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五行이 五運으로 변하면서 宇宙에 生氣를 발생시키는 것이니, 『黃帝內經素問』 「五運行大論」에서는 宇宙萬物의 시작은 하늘의(우주 공간에 떠있는) 二十八宿 상호간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五運의 氣運<sup>22)</sup>으로 蒼天之氣·丹天之氣·黃天之氣·素天之氣·玄天之氣이며, 이는 五行이 對待作用에 의해 運動性을 띠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것을 문자화시킨 것이 바로 天干이라고 하는 十干이니, 甲己合化土는 黃天之氣와 같은 개념인 것이다.

人體에 있어서도 이러한 象이 있으니 肝·心·脾·肺·腎 五臟이 그것이며, 이는 蒼天之氣·丹天之氣·黃天之氣·素天之氣·玄天之氣의 象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러한 五運之氣는 生命의 源泉之氣와 같은데, 지구라고 하는 공간에서 形體를 이루어 生命體가 되기 위해서는 六氣의 작용이 필요하게 된다.

六氣는 지구의 운행과정에서 五行의 質에 變化가 생겨서 運行之氣가 하나 더 불어나게 됨으로써 六種의 氣가 된 것인데, 이것은 지구에만 있는 氣이다. 즉, 五運의 氣化作用이 지구 주위에 집중하게 되면 지구에서는 이것이 六氣로 변화하는 것이다.<sup>23)</sup> 이것을 문자화시킨 것이 地支라고 하는 十二支이며, 인체에 있어서는 六腑가 여기에 해당된다. 五運과 六氣

22) 『素問·五運行大論』: “帝曰, 願聞其所始也. 岐伯曰, 昭乎哉 問也. 臣覽太始天元冊文, 丹天之氣 經于牛女戊分, 蒼天之氣 經于心尾己分, 蒼天之氣 經于危室柳鬼, 素天之氣 經于亢氏昂畢, 玄天之氣 經于張翼婁胃, 所謂戊己分者 奎璧角軫 則天地之門戶也”

23) 韓東錫, 前揭書, p112.

21) 白雲松, 手相秘訣, 明文堂, 1992, p13.

가 서로 관계하며 지구상에서 모든 變化現狀을 主管하게 되듯이, 인체 내에서는 五臟과 六腑가 서로 관계하며 生理·病理의인 모든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즉, 人體의 生命現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五臟과 六腑의 상호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五臟과 六腑의 상호관계는 五臟·六腑의 어느 한 곳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經絡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經絡은 마치 都市와 都市를 상호 연결해주는 道路와 같은 곳이다. 왜 臟腑間의 交流가 經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할까? 그 이유는 金火交易의 象에 있으나, 人體內의 모든 變化는 金火交易을 동반하게 되며, 金火交易이란 문자 그대로 상호 이질적인 金氣運과 火氣運이 서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순환운동을 할 수 있는 고리가 된다는 뜻이다.

金火交易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金火交易은 가을에 金기운이 통일을 이루는 상이며, 우주의 모든 運動은 金火交易이 주로 일어나는 가을을 지향한다. 金火交易은 少陽에서 시작하여 太陽에서 완성된다. 둘째, 金火交易은 여름부터 이미 金이 火를 싸는 준비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金火交易의 시작으로, 이러한 관계는 洛書에서 그 象이 드러나 있다. 즉 河圖에서는 火가 자리하고 있던 南方에 洛書에서는 四九金이 들어와 있다. 셋째, 일체 만물은 그 구조가 金이 火를 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肺가 心을 싸고 있고, 大腸이 소장을 싸고 있으며, 人體가 皮膚로 둘러싸여 있는 것 등은 人體內 金火交易의 象을 잘 반영하고 있다. 넷째, 손 끝과 발 끝에서도 金火交易을 통한 收斂이 이루어 지는데, 이러한 象이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손톱과 발톱이다.

그런데 이러한 金火交易이 일어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있으니 少陽相火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相火는 현상

계의 가장 강력한 火이며, 만약 臟腑의 어느 한곳에서 이러한 交易이 이루어진다면 臟腑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체에서는 이러한 交易의 현상을 臟腑에서 가장 먼 곳에서 이루어내고 있으니, 인체의 손과 발이 바로 金火交易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場이 되는 것이다. 즉 도시간을 연결하는 도로와 같은 經絡에 의해 인체의 末端 부위인 손과 발에서 金火交易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며, 이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宇宙運動을 닮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宇宙의 運動이란 一陰一陽하는 運動으로 끝없는 發散과 收斂의 反復運動인 것이다. 이러한 一陰一陽하는 운동 중 상호 이질적인 陰과 陽이 연결되어 生命運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용이 바로 金火交易이며, 金火交易은 發散이 끝나고 收斂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어나므로 圓運動의 가장 上部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는 一年 중 夏至와 立秋 사이에 해당되며, 우주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마디에 해당된다. 圓運動의 가장 上部나, 一年 중 夏至에 해당하는 形相이 인체 내에서는 手足이 되는데, 이는 手足이 陰陽五行 운동의 核이 되는 體幹部에서 가장 멀리까지 分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手足에는 상호 이질적인 五臟六腑의 氣가 서로 활발히 交流되고 있는 장소들이 있어야 하는데 五輸穴과 十宣穴, 八邪穴, 八風穴이 바로 그것이다. 五輸穴은 五臟六腑의 經脈인 12經絡의 穴 중 木·火·土·金·水의 五行이 이름 붙여진 곳으로 상호 이질적인 五行 각각이 활발히 교류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五輸穴의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하여 만든 針法이 舍巖五行針法과 八體質針法인데, 두 針法 모두 手足 末端의 五輸穴의 五行의 特性을 이용하여 臟腑의 疾患까지 잘 다스려내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때문이다. 대

표적 救急穴인 十宣穴과 八邪穴, 八風穴은 손가락과 발가락의 가장 끝부분과 指間으로, 이穴들이 救急穴이 되는 이유는 바로 末端部에서 金火交易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다. 즉 十宣穴과 八邪穴, 八風穴은 끊어진 인체내의 陰기운과 陽기운을 연결하여 생리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五輸穴 중의 대부분이 손목과 발목 관절 이하 末端部에 분포하는 것 또한 末端部가 金火交易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手足의 形相은 대상인 사람의 經絡運動 특성을 보다 자세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 交易이 활발히 일어나는 곳에서는 交易을 일으키는 각각의 특징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手足의 形相의 差異는 手足의 五輸穴에서 일어나는 상호교류의 特性的 差異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經絡과 氣質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論者は 이미 앞부분에서 三陰三陽의 개념은 形이 지닌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철학적 도구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三陰三陽의 개념을 이용하여 손의 形을 분류할 수 있다면, 단순한 구분에서 끝나지 않고 내부에서 활동하는 經絡의 특성과 氣質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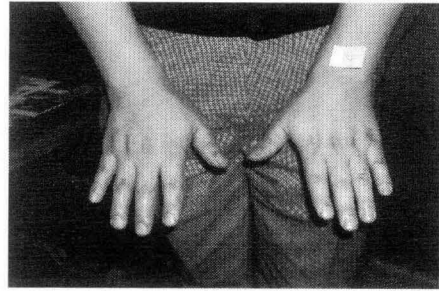
2) 三陰三陽 각각의 개념과 그에 따른 手型

### (1) 厥陰型

#### ① 厥陰의 概念

厥陰風木이라고 하는 말은 物이 生하려고는 하지만 힘이 모자라서 生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厥'字의 뜻은 '其也', '短也'라고 하였다. 그런즉 厥陰이란 것은 生하려고 하지만 그 기운이 모자라서 아직 生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또 '厥'字의 象을 살펴보면, 厂(굴바위 업)과 逆, 欠(기지게할 흠, 결핍할 흠)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것은 物이 나오려고 하

지만, 즉 逆出하려고 하지만 굴바위 아래와 같은 凝固가 심한 곳에 있어서 그 힘이 不及하므로 生할 수가 없는 것을 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厥字는 이와 같은 象을 取한 것이다.<sup>24)</sup>



【그림 3】 厥陰型

#### ② 厥陰手型의 特徵

厥陰은 三陰三陽의 시작으로 내부의 生命力이 강력한 陰의 壓迫을 뚫고 나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sup>25)</sup>, 形體의 始作은 바로 厥陰의 象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이는 때가 도래하여 강한 純陰之氣를 뚫고 活動을 始作하려는(힘이 아직 부족한) 生命力의 形象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뭇잎에 비하면 봄철에 가지를 뚫고 나오는 파릇하고 부드러운 새싹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手型의 파노라마에 적용하면 부드러운 질감과 짧고 도톰한 형상으로 적용이 된다. 生하려는 에너지는 강하지만 아직 그 에너지를 충분히 외부에 드러내지는 못하고 내부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외형이 짧으면서 도톰한 형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손을 짚었을 때 주먹이 쥐어지는 부분이 주위에 비해 움푹 꺼지고, 손바닥과 손등의 기육이 잘 발달하여 도톰하며, 매우 탄력이 좋고, 손가락은 곧게 뻗되 길이는 비교적 짧은 특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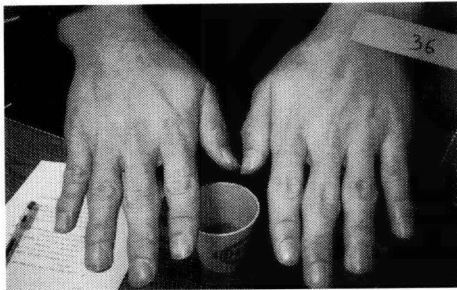
24) 韓東錫, 前掲書, p118.

25) 韓東錫, 前掲書, p118.

(2) 少陰型

① 少陰의 개념

少陰은 내부의 君火之氣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니, 君火라는 것은 少陰 속에서 자라는 火다. ‘君’자는 ‘尹’과 ‘口’로 되어 있는데, ‘口’는 氣가 出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尹’은 사물의 主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즉 君이란 뜻은 主動力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실력자를 말한 것이다. 이것을 地支에서 살펴보면 君火는 子位에서 午位에 이르는 사이의 火를 칭한 것이다. 子는 본래 水요, 午는 火다. 그런즉 子에서 午에 이르는 火는 실력은 충분하나 아직 그 맹위를 發하지 못하는 火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陰中の 火, 즉 陰性이 아직 많이 作用하는 火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象이 바로 君火의 象이요, 또한 少陰의 象이다.<sup>26)</sup>



【그림 4】 少陰型

② 少陰手型의 특징

少陰은 陰의 收縮力을 밀어내기 시작한 內部的 陽이 힘을 얻어 더욱 밀어내니 形이 무력무력 커가는 시기에 해당된다. 少陰君火에서 “君”이란 뜻은 主動力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實力있는 位<sup>27)</sup>이니, 인생으로 보면 사춘기에 거침없이 成長해가는 시기에 해당된다

26) 韓東錫, 前掲書, p119.

27) 韓東錫, 前掲書, p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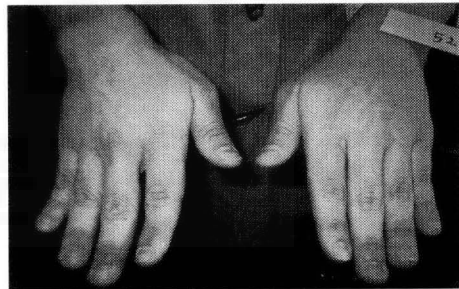
하겠다. 少陰은 陽이 主動力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실력있는 位이니, 나뭇잎에 비하면 가지를 뚫고 나온 새싹이 오월의 충분한 陽氣에 힘입어 빠르게 커가는 象과 동일하다.

手型에 있어서도 쪽쪽 뻗는 形象이 주된 특성이 되며, 마디가 굵고 손끝에서 뻗어나가는 기운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는 내부의 陽이 마음껏 뻗어나가는 少陰의 개념과 일치되는 象이다.

(3) 太陰型

① 太陰의 개념

太陰의 의미는 지극히 작으면서도 지극히 크게 나타나는 陰이라는 것이다<sup>28)</sup>. 즉, 陰形을 擴張시키는 陽氣의 힘이 가장 멀리까지 가는 시기이니, 外形을 보면 지극히 크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러한 形을 감싸는 陰은 主導權을 잃으려하는 象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림 5】 太陰型

宇宙의 運動이란 것은 본래 陰陽運動이다. 陰陽에는 三陰과 三陽이 있는 것인즉 厥陰·少陰·太陰이 끝난다는 말은 바로 三陰運動이다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유의하여야 할 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은 方位로 볼 때 분명히 東南의 物生運動의 과정이었다. 그런즉 그것은 陽生運動이

28) 韓東錫, 前掲書, p119.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三陰運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하는 점이다. 東南에서 陽運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본질에 대한 觀察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陰運動이라고 한 것은 그의 作用面을 論한 것이다. 生長面에서 陰(三陰)概念이 作用하는 것은 物의 生長은 陰의인 現象을 나타내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루어져야만 하므로 이와 같이 개념을 설정하였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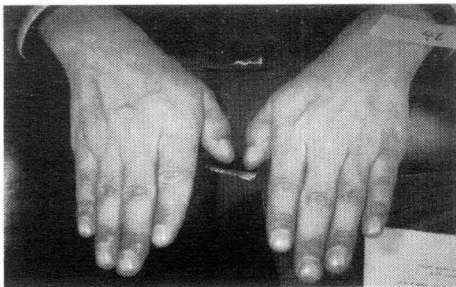
② 太陰手型的 特徵

이 시기는 인생의 20대로 形이 완전히 分化되어 가장 華麗한 外形을 나타내는 시기라 하겠다. 太陰은 少陰에서 힘을 발휘하던 내부의 陽이 가장 멀리까지 뻗은 시기로, 나뭇잎에 비하면 한 여름에 커질 때로 커져 더위에 지친 듯한 넓은 잎에 해당한다.

수형에 있어서의 특징은 손가락이 길고 손끝이 넓게 퍼져있는 상을 나타내며, 손톱이 납작하게 박혀 편평하다. 이는 쪽쪽 뻗은 陽이 더 이상 뻗을 곳이 없음을 나타내주는 형상으로 태음의 개념과 일치된다 하겠다.

(4) 少陽型

① 少陽의 개념



【그림 6】 少陽型

少陽은 外形이 커가는 시기가 끝나고, 內氣

29) 韓東錫, 前揭書, p120.

가 凝縮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少陽에 대해 韓<sup>30)</sup>은 “相火에 이르게 되면 實力은 弱화되었지만 外勢는 가장 旺盛한 火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少陽에서 ‘少’는 아직 젊다는 뜻이니, 天道는 三陰過程에서 陽을 전부 發散하였으므로, 三陽過程에서는 다시 종합하여야 한다. 少陽이 종합의 최초의 단계이므로 ‘少’字를 쓴 것이니, 陽의 創造過程을 표준으로 하여 少陽이라고 한 것이다.<sup>31)</sup> 相火란 말도 君火를 도와 주는 火란 뜻이다. 君火를 돕는다는 말은 君火는 發散을 위주로 하는 火인즉 綜合만이 그의 보조가 되는 것이므로 天道는 相火로써 君火의 補助作用을 하게 한 것이다. 이것이 마치 人君을 돕는 正丞(相)의 역할이 人君의 放蕩을 諫하는데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sup>32)</sup>

② 少陽手型的 特徵

이시기는 인생에 있어서도 生命 현상체로서는 下降曲線을 그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30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는 뜨겁고 濕한 太陰의 시기를 지나 가을의 초입에 나타나는 따가운 햇살로 식물의 잎에 있어서도 가을 초입에 나타나는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잎에 해당한다.

수형에 있어서의 끈게 쪽 뻗어 있으며 손끝에서 수렴되는 형상을 나타내게 되며, 손가락의 마디가 약간 굵으면서 끈게 뻗되, 손끝은 뾰족해지는 특성을 나타내고, 피부가 얇고 투명한 느낌이 있다.

(5) 陽明型

① 陽明의 概念

陽明이란 것은 日月이 합하여 明을 이루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素問』에 이것을 “兩陽合明曰陽明”이라고 말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太陽은 一陽이고, 少陽은 三陽인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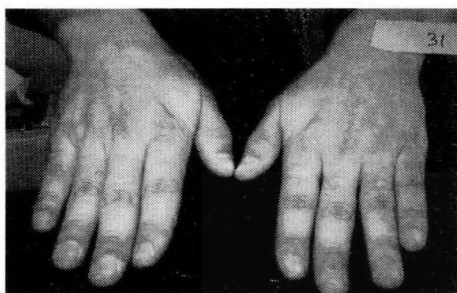
30) 韓東錫, 前揭書, p121.

31) 韓東錫, 前揭書, p121.

32) 韓東錫, 前揭書, p121.

두 개의 陽이 합하면 明을 이루는 법이다. 그러므로 兩陽이 합해서 明을 이룬 것을 陽明이라고 한 것이다.<sup>33)</sup> 이 때부터는 燥金의 作用에 의해 濕이 收斂되기 시작하여 점차 건조해진다.

그것은 氣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6, 7 月の 하늘은 氣壓이 낮고 8, 9 月に 하늘이 높은 것은 바로 陽明燥金이 生하는 때이기 때문이다.<sup>34)</sup>



【그림 7】 陽明型

#### ② 陽明手型的 특징

陽明은 少陽에서 凝縮되기 시작한 內氣가 陽明의 때에 이르면 더욱 強力하게 凝縮이 된다. 이 시기는 外形이 본격적으로 시들기 시작하는 때이며 인생에서 40代가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韓<sup>35)</sup>은 “陽明은 物質面에서 보면 收斂하여서 燥하게 하는 데 불과하지만 精神面에서 보면 모든 私慾과 邪惡의 발동을 버리고 精神을 收斂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命이 生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40세를 不惑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러한 인생의 시기를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뭇잎에 비하면 가을에 탈색이 되고 건조해져서 색이 변한 단풍잎에 해당한다.

手型에 있어서의 특징 또한 수렴의 형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데, 손가락은 굵기의 차

이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곧게 뻗고, 손끝은 뾰족해지게 되며, 피부의 윤택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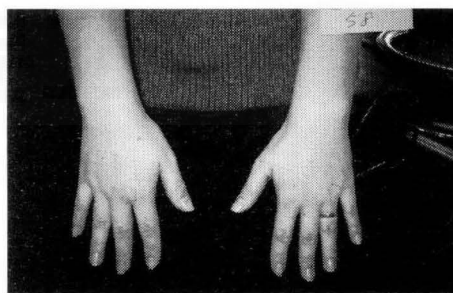
#### (6) 太陽型

##### ① 太陽의 概念

太陽은 三陽運動의 마지막이며 生命에너지가 가장 強力하게 凝縮되는 시기이다. 太陽이란 말은 본체면에서 보면 가장 작은 陽이지만 현상면에서 보면 가장 큰 陽이라는 의미이다.<sup>36)</sup> 陽이 最深部에 伏藏되어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일 뿐이고 사실은 그 실력이 가장 큰 陽인 것이다. 그래서 太陽이라고 한 것이다.

##### ② 太陽手型的 특징

이는 外形이 완전히 시드는 시기로 인생으로는 50代 以後가 해당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生命에너지는 가장 強力하게 凝縮되는 시기이니, 輪廻의인 東洋의 人生觀으로 볼 때 다음 生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형태의 生命현상인 것이다. 나뭇잎에 비하면 낙엽이 떨어져 뿌리 깊은 곳으로 에너지가 저장된 象과 같다.



【그림 8】 太陽型

手型에 있어서도 가장 잘 陽氣가 응축된 象을 나타내게 되는데, 주먹부분의 주름들이 손목쪽으로 많이 밀려 있는 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적이다. 기육이 발달하며, 매우 부드러운

33) 韓東錫, 前揭書, p121.

34) 韓東錫, 前揭書, p121.

35) 韓東錫, 前揭書, p121.

36) 韓東錫, 前揭書, p122.

데 厥陰의 手型과 다른 점은 부드러움이 추가되며 탄력은 떨어져 물살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 4. 三陰三陽 各各의 手型에 따른 특성 통계 분석

##### 1) 연구방법(Research Method)

###### 피검사자: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98명(남자 57명; 여자 41명)이 본 연구에 피검사자로 참여하였다.

###### 연구 절차:

피검사자들이 검사실로 들어서면 연구자는 피검사자들에게 본 연구는 사람의 손 모양과 성격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라고 소개를 하였다. 검사에 필요한 시간은 약 40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과 손 모양의 분류를 위해 카메라를 이용한 손과 얼굴의 촬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 이 때 연구에 거부감을 표하는 피검사자들은 검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하였으나 어떤 피검사자도 검사에 거부감을 표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피검사자들이 검사실에 도착하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우선 피검사자의 양손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어서 피검사의 안면 모습도 촬영하였다. 가능하다면 손 전체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촬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사진 촬영이 끝난 후에 피검사자들은 간단한 성격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본 연구를 위해서 제작된 성격 설문지를 제공받았다. 이 설문지에는 총 98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각 문항들은 원전에 근거한 6개의 사람 유형과 그 유형의 성격적 특징이라고 알려져 온

특성들을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 西洋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성격 유형을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MBTI를 이용하는데, 이는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심리학적 유형을 검토하기 위한 설문지형 도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다<sup>37)</sup>. 그러나 이는 인간의 심리학적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한 것이어서, 본 연구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6가지 형상 유형이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성격들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격 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각 유형과 그의 성격 특성에 대한 기존의 주장들이 경험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규명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학설로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의학내의 이러한 주장이 성격을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성격 도구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형들의 성격을 측정하는 도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물론 MBTI를 이용하여 사상체질의 심리학적 특성을 연구한 몇편의 논문이 있기는 하다<sup>38)39)</sup>. 四象醫學에서는 인간의 심리유형을 네가지로 분류한 것이므로, 이 역시 본 논문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6가지 유형의 성격의 특성에 대하여 기존의 한의학 분야에서 소개

37) Myers IB, McCaulley MH(translated by Kim JT, Sim HS, Je SB):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Seoul, Korea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1995.

김종우·황의완·이의주, 大韓身心스트레스學會誌 : 제7권 제2호 1999, pp20 재인용

38) 김종우 등, 前揭書

39) Park HG, Lee HJ: A Study on the associations between Lee Je-Ma Sasang Constitution and G.G. Jung's Psychological Types, J Constitutional Medicine, 10(2):41-45, 1998.

되어 있는 것들을 참조로 하고, 또한 본인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하여 성격 문항들을 만들고 나서 심리 검사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총 98개의 문항들로 압축하였다. 98개의 문항들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지만 몇 가지 문항들을 예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나는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나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싫어 하며, 여행을 잘 다니지 않는다.

나는 즉각적으로 어떤 일에 뛰어들기보다는 일의 결과를 계산해 본 후에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편이며, 좋고 나쁨의 표현이 분명한 편이다. 나는 외향적인 편이다.

위의 예문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성격 질문지 문항들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어휘들로 구성되었고 심리학의 전문 용어나 한의학의 이론에 관한 기술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피검사자들은 각각의 성격 기술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정도를 11점 척도 (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10: 전적으로 동의한다)에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98개의 문항들은 아주 정교하게 고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검사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후, 통계 분석을 통하여 더 소수의 문항들로 압축되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결과 분석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피검사자들이 성격 질문지를 완성한 후에 검사자는 피검사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제공하였다.

## 2) 연구 결과 (Research Results)

### 사진 분석: 손 유형 분류

대학의 연구실에서 촬영된 피검사자들의 손

사진과 얼굴 사진들은 본 연구자에 바로 전달되었고, 본 연구자는 양손과 안면 사진을 종합하여 음양 이론에 근거하여 각 피검사자를 6가지 유형 중 (겉음, 소음, 태음, 소양, 양명, 태양)에서 하나의 유형에 할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손 유형 분류가 정확해야만 하기 때문에 손 유형 분류를 2회 실시하였으며 각 회기간 일치율은 높은 편이었다.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검사들은 어느 특정 유형으로 구별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각 개인이 6가지 유형의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지의 정도를 7점 척도상에서 각각 평정하였다. 즉 A라는 개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개인이 어떤 유형의 특성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를, 6개의 유형에 대하여 반복 평정하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자신의 구별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하는지의 정도를 0-100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만일 확신도가 너무 낮은 경우는 유형 변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분석에서 이를 고려하기 위함이었다.

### 성격 질문지 분석:

위에서도 진술하였듯이 성격 문항 98개<sup>40)</sup>는 정교하게 제작되었다기보다는 본 연구자의 주관과 임상 경험에 의하여 제작되었다. 또한 심리 검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98개 문항 모두가 지정한 심리 검사 문항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항들은 6개의 유형들을 변별해주는 변별 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가 전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은 98개의 문항들 중에서 가장 신뢰롭고 타당한 문항들을 골라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98개의 문항들에 대한 피검사자들의 응답을 기초로 하여 요인 분석

40) 부록1.

(factor analysis)이 실시되었다. 요인 분석이란 통계법은 문항들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관계들을 추출해내는 방법이다.<sup>41)</sup> 즉 표면적으로 볼 때는 98개의 독립적인 문항들이 존재하지만 그 심층에는 몇 개의 공통된 하위 그룹이 존재할 수 있다. 이 하위 그룹들을 발견하고 각 그룹(전문 용어로는 요인)에 소속될 수 있는 문항들을 추출하는 것이 요인 분석의 목적이다.

**요인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 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었으며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하였고 고유치 (Eigen value) 값이 1이상 요인들 중에서 scree plot 검사를 통하여 본 연구에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5개의 요인들을 추출하였다.<sup>42)</sup> 이 5개의 요인들에 깨끗하게 포함되지 않는 문항들은 결과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각각의 요인과 각 요인에 포함되는 대표 문항들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이름**

내향성 (Introversion)

**대표 문항**

- \* 나는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 \* 나는 외향적인 편이다 (부정 문항)
- \* 나는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을 좋아한다 (부정문항)

자기 주장성 (Assertiveness)

- \* 나는 내 주장이 한번 정해지면 확신있게

소신을 펴는 편이다

- \* 나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힘과 자기 주장이 강하다
- \* 나는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 있어서 부딪힘이 적다(부정문항)

즉흥성 (Spontaneity)

- \* 나는 즉흥적인 경우가 많다
- \* 나는 즉각적으로 어떤 일에 뛰어들기 보다는 일의 결과를 계산을 해 본 후에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부정 문항)

인정 및 배려 (Generosity)

- \* 나는 포용력이 많고 표현을 부드럽게하는 편이다.
- \* 남에 대한 감정적인 배려를 잘 할 줄 모르는 편이다 (부정 문항)

사회적 후퇴 (Withdrawal)

- \* 나는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하는 편이다
- \* 나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부정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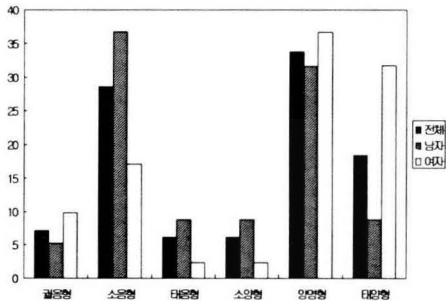
최종 자료 분석은 이 다섯 가지 요인들에 대한 점수를 각 유형별로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각 요인들의 이름이다. 요인들의 이름은 각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되어지는 성격 특질을 본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붙인 이름이다. 따라서 내향성, 자기 주장성, 즉흥성, 인정 및 배려, 그리고 사회적 후퇴라는 특질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기 보다는 각 그룹에 포함된 문항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성격 특질을 임의적으로 선정한 셈이다. 따라서 각 그룹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붙여도 상관이 없다. 요인 분석의 이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 결과를 너무 고지식하게 받아드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41) Comrey, A. L., & Lee, H. B.,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 Hillsdale, NJ, 1992.

42) Tabachnick, B. G., & Fidell, L. S.,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New York, HarperCollins, 1996.

각 유형의 분포 정보

본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정보는 6개의 유형들이 어떤 분포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각 유형이 동일한 정도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유형들은 보편적으로 많이 존재하지만 다른 유형들은 매우 소수로 존재하는지의 정도를 알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유형의 분포 정보는 【그림 9】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림 9】 각 유형의 분포비율(%)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각 유형의 상대적 빈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남녀 구분없이 분석하였을 때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형은, 양양형 (33.7%) 그 다음이 소음형 (28.6%), 그리고 태양형이었다 (18.4%). 이 세 유형이 전체 피검 사자의 80.7%를 차지하였다. 가장 빈도가 낮은 유형은 태음형과 소양형이 각각 6.1%이었고 그 다음으로 꺾음형이 7.1% 이었다.

여기서 다시 6가지 유형을 크게 음형과 양형으로 나누면 음형이 (꺾음, 소음, 태음) 41.8%, 양형 (소양, 양명, 태음)이 58.2%로 양인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이 분포 정보를 다시 남자와 여자로 따로 분석하였을 때 남자와 여자간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남자의 경우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소음 (36.8%) -- 양명 (31.6%) -- 태음 & 소양 &

태양 (8.8%씩) -- 꺾음 (5.3%) 이었다. 여자의 경우는 양명 (36.6%) -- 태양 (31.7%) -- 소음 (17.1%) -- 꺾음 (9.8%) -- 태음 & 소양 (2.4%씩) 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남녀 성 차이는 태양형의 분포에서 발견되었다. 남자의 경우 태양형은 전체의 8.8%밖에 차지하지 않았지만 여자의 경우는 31.7%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소음형의 상대적 분포에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소음형은 남자의 경우는 가장 흔한 유형이었지만 (36.8%) 여자의 경우는 17.1%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음형과 양형의 분포로 비교했을 때 남자의 경우는 음형이 50.9%이고 양형이 49.1%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지만, 여자는 음형이 29.3%이고 양형이 70.7%로서 양형의 수가 월등히 많았다. 왜 이러한 성차를 보이는지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더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결과는 샘플 사이즈가 너무 적어서 생긴 우연의 결과일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각 유형의 분포가 남녀간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과 陰形과 陽形의 분포가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하고 흥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각 성격 요인에서의 유형별 차이

요인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5개의 성격 요인에 대하여 각각의 유형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아래에 기술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유형별 사례수가 다르고 특히 어떤 유형은 그 사례수가 지극히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statistically significant)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즉 각 유형별로 성격 요인에서 점수 상에서 차이가 났더라도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들은 정말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다는 샘플 크기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도출한 결과들 중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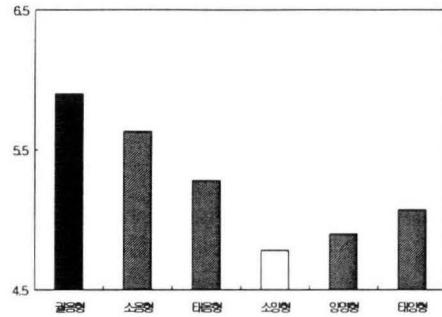
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관계적인 통계적 유의 수준인 5% 확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석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제약 조건을 감안하여 이후의 자료 분석에서는 각 성격 요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두 집단에 대한 비교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① 내향성 (Introvertedness)

내향성-외향성의 정도는 사람들의 성격을 기술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들 중의 하나이다. 현대 서구 심리학에서 성격을 기술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다섯 개의 성격 특질 (흔히 Big Five라고 부르는 특질들<sup>43)</sup>)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외향성 정도이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외향성 정도는 성격 특질 중에서도 생물학적인 기반이 강하다고 한다. 따라서 흔히 기질 (temperament)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되는 특질 중 하나이다. 내외향성 정도가 뇌의 서로 다른 신경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보고들을 고려할 때 내외향성은 본 연구에서 관심 있는 유형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6개의 하위 유형을 음인과 양인의 2개의 상위 집단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음인과 양인 사이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외내향성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내향성의 정도에서 각 유형별 차이는 【그림 10】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0】 내향성 (Introvertedness) 정도에서의 각 유형별 차이

내향성의 정도가 가장 강한 유형은 권음형 (5.90)이었고 내향성의 정도가 가장 약한 유형 (즉 외향성의 정도가 가장 강한 유형)은 소양형 (4.79)이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샘플 사이즈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두 유형간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t(11) = 1.14, p = .27$ . 그러나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이론에서 살펴보면 가장 내향적인 사람으로 권음형이, 그리고 가장 외향적인 사람으로 소양형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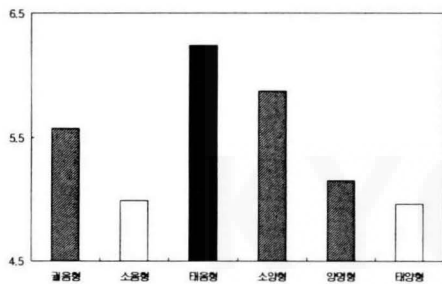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형 (권음, 소음, 태음)과 양형 (소양, 양명, 태양)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내외향성 정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론상 음형이 양형보다는 내향적이어야 하는데 통계 분석 결과가 이 예상을 지지하였다. 음형 세 유형에 각각 -1, -1, -1의 대비 계수 (contrast coefficient)를 부여하고 양형 세 유형에 각각 +1, +1, +1의 계수를 부여한 후 사전 대비 검증 (planned contrast analysis)을 한 결과 두 집단간의 차이가 경계선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t(92) = 1.63, p = .10$ . 즉 예상과 일치하게 음형 집단이 양형 집

43) Goldberg, L. R.,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9, 1990, pp1216-1229. ; Goldberg, L. R., The structure of phenotypic personality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vol.48, 1993, pp26-34. ; Norman, W. T.,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66, 1963, pp574-583.

단보다 더 내향적이었다. 【그림 10】을 살펴 보면 위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가장 내향적인 순서대로 나열하면 꺾음형 -- 소음형 -- 태음형 -- 태양형 -- 양명형 -- 소양형이었다. 음형 세 유형이 상위 세 집단을 차지하고 있고 양형 세 유형이 하위 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자기 주장 (Assertiveness)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하고 그 것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 자기 주장 (Self-assertiveness)에서의 각 유형별 차이

자기 주장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을 살펴보다도 자기 주장을 확신 있게 펴고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 이 성격 요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많은 심리적 문제가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자기 내면에서 삭이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들은 자기 주장성의 정도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성격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sup>44)</sup>. 그런 한편으로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경우에 인간 관계에서

갈등과 불화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라고 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기 주장의 정도에서의 각 유형별 차이는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 주장이 가장 강한 집단은 분석 결과 태음형 (6.24)이었고 자기 주장이 가장 약한 집단은 태양형 (4.96)이었다. 아주 중요하게도 이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t(22) = 2.29, p < .05$  다시 말하면 태음형과 태양형의 자기 주장성에서의 차이는 우연 (chance)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태음형과 태양형이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도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고 한의학의 이론에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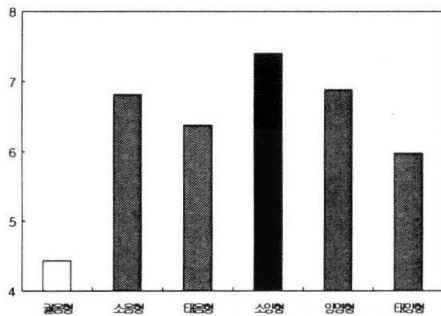
자기 주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유형을 살펴보면 태양형 외에도, 소음형 (4.99)과 양명형 (5.05)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유형에는 태음형 외에도, 꺾음형 (5.57)과 소양형 (5.87)이 있었다. 앞에서 제시한 내외향성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내향성이 강하다고 하여 반드시 자기 주장이 약하다거나 외향성이 강하다고 하여 반드시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꺾음형이 비록 가장 내향적인 편이었으나 자기 주장 정도가 강한 편인 것을 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언뜻 보면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 중에서도 자기 주장은 분명한 사람이 있고 외향적이고 활발한 사람 중에서도 자기 주장이 약한 사람이 있음을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③ 즉흥성 (Spontaneity)

여기서 말하는 즉흥성은 “계산적 (calculative)”의 반대 의미로 사용된다. 즉흥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꼼꼼히 계획하고, 사전에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

44) 이장호, 조성호, 정남운, 상담심리학의 기초, 서울, 학문사, 1999.

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을 쉽게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경험하는 단점도 있지만, 인간 관계에서는 소탈하고 진실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즉흥적인 사람들은 술에 쉽게 취하고 주사가 있을 수 있으며 논리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즉흥성에서의 각 유형별 차이는 **【그림 1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2】** 즉흥성 (Spontaneity)에서의 각 유형별 차이

매우 흥미롭게도 즉흥성에 있어서는 여섯 유형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F(1,92) = 6.45, p < .001$  가장 즉흥적인 집단은 소양형 (7.40)이었고 가장 덜 즉흥적인 (즉 가장 계산적인) 집단은 꺾음형 (4.45)이었다. 이 두 집단간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t(11) = 3.26, p < .01$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즉흥성이 비교적 강한 집단으로는 소양형외에도, 양명형 (6.88)과 소음형 (6.815.01)이 포함되었고, 비교적 계산적인 집단에는 꺾음형 외에도, 태양형 (5.97)과 태음형 (6.37)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림 12】**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듯이, 꺾음형과 소양형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고, 나머지 네 집단들은 그 정도가 서로 비슷하였다.

즉흥성의 결과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음형의 한 유형과 양형의 한 유형이 극단적으로 비교된다는 점이다. 가장 즉흥적인 유형은 양형인 소양형이, 가장 덜 즉흥적인 유형은 꺾음형이 해당되었다. 또한 이 결과를 내향성의 결과와 결합시켜 해석해도 흥미롭다. 가장 내향적인 집단으로 꺾음형이 해당되었는데, 꺾음형 역시 가장 덜 즉흥적인 유형으로 판명되었다. 이 패턴은 의미적으로 매우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내성적일수록 즉흥적이기 보다는 꼼꼼히 따져보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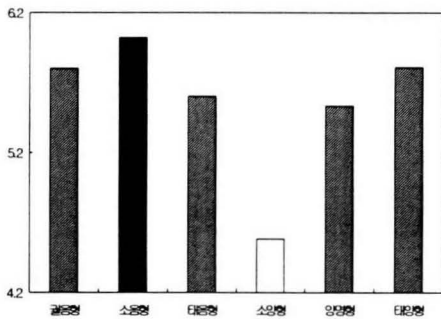
#### ④ 인정 및 배려성(Generosity)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인정 및 배려성을 한마디 이야기하면 관대함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타인의 감정을 미리 생각한다든지, 행동을 하기 전에 타인의 상황을 살핀다와 같은 특성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어떤 일을 추진할 때고 일의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중요성을 많이 부여하는 유형이다. 이 성격 요인이 흥미를 끄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대 의학과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A형 성격 유형 (Type A Personality)과의 관련성이다<sup>45)</sup>. 특별히 관상동맥성 심장 질환에 노출된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과도하게 경쟁적이거나 시간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적대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sup>46)</sup>. 이 중에서도 특히 타인에 대한 적대성이 가장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비꼬며 조롱하는 성격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남에게 배려를 잘 한다는 것은 이러한

45) Friedman, M., & Rosenman, R. H., Type A behavior, New York, Knopf, 1974.

46) Williams, R. B., Psychological factors in coronary disease, Epidemiological evidence, Circulation, vol.76, 1987, pp117-123.

A형 성격 유형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배려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유형일수록 이러한 관상동맥성 심장 질환과 같은 질병에 덜 노출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추후에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3】 관대성 (Generosity)에서의 각 유형별 차이

인정 및 배려 차원이 관심을 끄는 두 번째 이유는 어느 조직이든지 두 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다는 이론 때문이다. 그 하나는 과제 중심적 리더 (task-oriented leader)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 중심적 리더 (relationship-oriented leader)이다<sup>47)</sup>. 과제 중심적 리더가 과제에만 치중하여 조직내 인간 관계를 잘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관계 중심적 리더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탁월하다고 한다. 배려성이 높을수록 관계 중심적 리더가 되기에 유리하다고

가정할 때 어느 유형이 배려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지 살펴보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많은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관대성의 정도에서의 유형별 차이는 【그림 1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가장 배려심이 높은 집단은 소음형 (6.02) 이었고 가장 배려를 할 줄 모르는 유형은 소양형 (4.58)이었다. 이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였다,  $t(32) = 3.34, p < .005$ . 여기서도 역시 다시 한 번 음형과 양형의 한 유형씩이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 분석에서도, 비록 음형 중 어떤 유형이, 그리고 양형 중 어떤 유형이 어떤 성격 유형이 대비를 이루는지는 차이가 있었지만, 적어도 어느 성격 특질에서도 음형과 양형은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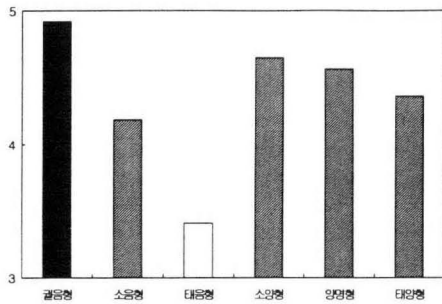
인정과 배려성에 대한 결과를 다른 성격 요인들의 결과와 연결시키면 더욱 흥미롭다. 특히 소양형의 경우를 보면, 소양형은 가장 외향적이었고, 가장 즉흥적이었으며, 동시에 자기 주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집단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면 어느 집단의 과제형 리더로서 가장 적합한 유형은 소양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3】을 살펴보면 소음형과 소양형이 가장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유형들은 그 정도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권음형 (5.80), 태음형 (5.60), 양명형 (5.54), 태양형 (5.81).

#### ⑤ 사회적 회피 (Social withdrawal)

여기서 의미하는 사회적 회피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속성을 사회적 회피라고 할 수 있다. 이 속성에서의 유형별 차이는 【그림 14】에 제시되어 있다.

47) Bales, R. F., Task roles and social roles in problem-solving groups. In E. E. Maccoby, T. M. Newcomb, & E. L. Hartley (Eds.),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58. ; Kerr, S., & Jermier, J. M., Substitutes for leadership: Their meaning and measur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vol.22, 1978, pp375-403.



【그림 14】 사회적 회피성 (Social withdrawal)에서의 각 유형별 차이

사회적 회피 혹은 비활동성의 정도가 가장 심한 유형은 결음형 (4.92)이었고, 가장 활동적인 유형은 태음형 (3.41)이었다. 그러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다. 흥미롭게도 지금까지의 결과와는 달리 극단적인 대비를 보이는 두 유형이 모두 음형에 해당하였다. 나머지 유형들은 사회적 회피의 정도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음형 (4.18), 소양형 (4.83), 양명형 (4.36), 태양형 (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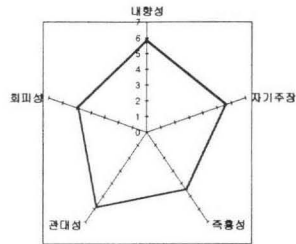
결음형이 가장 비활동적이라는 결과는 결음형이 가장 내성적이라는 결과와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각 유형의 성격 프로파일

지금까지 위에서 제시한 결과들은 5개 각각의 중요한 성격 특질에 있어서 각각의 성격 유형이 서로 어떻게 다르고 비슷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결과는 하나 하나의 특성에서 유형별 차이를 알려주는 장점은 있지만, 각 성격 유형의 전체적인 성격 특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각의 유형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성격을 5가지 성격 특질을 모두 고려한 프로파일 형식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이 프로파일은 각 유형의 성격 특성을 한 눈에 파악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

① 결음형

결음형의 프로파일은 【그림 15】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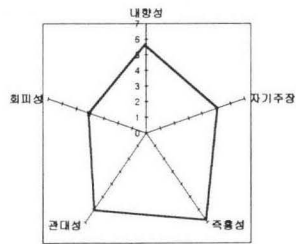


【그림 15】 결음형의 성격 프로파일

결음형의 프로파일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결음형은 매우 내성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인 정도가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음형의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결음형의 프로파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② 소음형

소음형의 프로파일은 【그림 16】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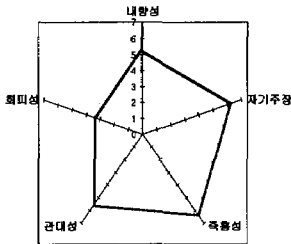
【그림 16】 소음형의 성격 프로파일

소음형은 같은 음형인 결음형과 비슷하게 내향적이지만 결음형과는 달리 매우 즉흥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을 프로파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소음형은 자기 주장이 약한 편이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역시 강한 편이다.

③ 태음형

태음형의 프로파일은 【그림 1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7】 태음형의 성격 프로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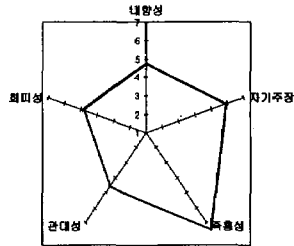
태음형은 음형 중에서 가장 활동적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회피성의 정도가 쥘음형이나 소음형에 비하여 약한 것을 통하여 그러한 추리를 해볼 수 있다. 또한 쥘음형과는 달리 자기 주장 또한 강한 편이며 소음형과 비슷하게 즉흥적인 성격도 소유하고 있다. 쥘음형과 소음형 그리고 태음형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음형다운 음형은 쥘음형이고 가장 음형답지 않은 음형은 태음형임을 알 수 있다.

④ 소양형

소양형의 프로파일은 【그림 18】에 제시되어 있다

소양형은 여러 측면에서 가장 뚜렷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가장 즉흥적이고 또한 매우 외향적이다. 동시에 남을 배려하는 정도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 주장 또한 강한 면모를 성격 프로파일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양형은 한마디로 매우 사회적으로 활발하며 자기 주장이 강하며 그러나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독단적인 측

면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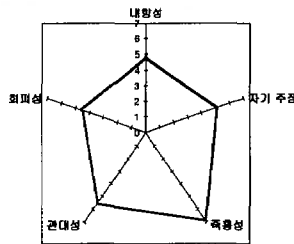


【그림 18】 소양형의 성격 프로파일

⑤ 양명형

양명형의 프로파일은 【그림 19】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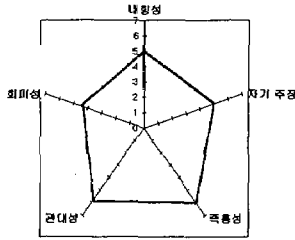
양명형은 모든 면에서 소양형과 비슷한 성격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같은 양형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양형에 비교할 때 양명형은 자기 주장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따라서 소양형보다는 더 사교적이고 인간 관계에서 더 원만한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림 19】 양명형의 성격 프로파일

⑥ 태양형

태양형의 프로파일은 【그림 20】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0】 태양형의 성격 프로파일

태양형은 소양형이나 양명형보다는 즉흥적인 정도가 약한 편이다. 같은 양형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더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타인에 대한 배려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토의

手型과 性格特性과의 聯關性を 조사 분석한 바, 그 內容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내향성 정도는 厥陰型이 가장 强하고 少陽型이 가장 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厥陰型에서 少陽型으로 갈수록 내향성 정도가 차차 약해지다가 다시 陽明型-太陽型으로 가면서 점차 강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陰陽의 進退消長과 符合하는 것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샘플 사이즈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두 유형간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p=.27). 그러나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이론에서 살펴보면 가장 내향적인 사람으로 淸음형이, 그리고 가장 외향적인 사람으로 소양형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기주장의 정도는 내향성 정도와는 그 양상이 반대로 나타났다. 즉 太陰型과 陽明型이 자기 주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太陰과 陽明은 三陰三陽 중 外形의으로 가장 발달하는 단계에 해당하므로 그 성격의 特徵 또한 자기 주장을 잘 내세우는 쪽으로 발달한 것이라고 추

측해 볼 수 있다. 아주 중요하게도 이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05)

즉흥성에 관한 분석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少陽型이 즉흥성이 强하다는 점과 厥陰型이 즉흥성이 아주 약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으며(p<.01), 여섯 유형간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001). 이는 내향성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나름대로 유의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대성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배려심이 높은 집단은 소음형이었고 가장 배려를 할 줄 모르는 유형은 소양형이었다. 이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였다(p<.005). 관대성에 대한 분석에서 두드러진 점은 少陽型이 남에 대한 배려가 가장 不足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少陽은 三陰三陽 중 三陰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껏 부풀린 形體를 다시 收斂하지 시작하는 단계로, 일의 한계를 굽고 이것저것 벌여놓았던 일들을 정리해서 거두어들이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런 점에서 少陽型은 치밀하면서 일에 관해서는 인정이 없고, 생각이 독단적이며 포용력이 모자라며, 구두쇠가 많다.

社的인 회피성에 대한 분석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지만 厥陰型이 가장 비활동적이며 내성적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類型의 성격 特徵을 종합해보면,

厥陰型은 매우 내성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인 정도가 매우 약하다. 陰型의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淸음형이다.

少陰型은 厥陰型과 비슷하게 내향적이지만 淸음형과는 달리 매우 즉흥적인 면이 강하다. 또한 소음형은 자기 주장이 약한 편이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역시 강한 편이다.

太陰型은 陰型 중에서 가장 활동적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회피성의 정도가 厥陰型이나 少陰型에 비하여 약한 것을 통하여 그러한 추

리를 해볼 수 있다. 또한 厥陰型과는 달리 자기 주장 또한 강한 편이며 少陰型과 비슷하게 즉흥적인 성격도 소유하고 있다.

少陽型은 한마디로 매우 사회적으로 활발하며 자기 주장이 강하며 그러나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독단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陽明型은 모든 면에서 少陽型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같은 陽型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少陽型에 비교할 때 陽明型은 자기 주장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따라서 少陽型보다는 더 사교적이고 인간 관계에서 더 원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太陽型은 少陽型이나 陽明型보다는 즉흥적인 정도가 약한 편이다. 같은 陽型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더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타인에 대한 배려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보면, 각 手型的 성격적 特徵이 三陰三陽이 갖는 속성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앞으로 설문지 문항을 좀더 치밀하고 객관적으로 채택하고 實驗 대상을 늘려 나가는 등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좀더 나은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

### III. 結 論

韓醫學의 가장 중요한 사유도구 중 하나인 三陰三陽의 개념을 이용하여 손의 형태를 분류하고 個人의 陰陽의 特性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厥陰手型은 부드러운 질감과 짧고 도톰한 형상으로 적용이 된다. 生하려는 에너지는 강하지만 아직 그 에너지를 충분히 외부에 드

러내지는 못하고 내부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외형이 짧으면서 도톰한 형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7.1%)

2. 少陰手型은 쪽죽 뻗는 형상이 주된 특성이 되며, 마디가 굵고 손끝에서 뻗어나가는 기운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는 내부의 양이 마음껏 뻗어나가는 少陰의 개념과 일치되는 상이다.(28.6%)

3. 太陰手型은 그 特徵이 손가락이 길고 손끝이 넓게 퍼져있는 상을 나타내며, 손톱이 납작하게 박혀 편평하다. 이는 쪽죽 뻗는 양이 더 이상 뻗을 곳이 없음을 나타내주는 형상으로 太陰의 개념과 일치된다.(6.1%)

4. 少陽手型은 그 特徵이 곧게 쪽 뻗어있고 수렴되는 형상을 나타내게 되며, 손가락의 마디가 약간 굵으면서 곧게 뻗되, 손끝은 뾰족해지는 특성을 나타낸다(6.1%).

5. 陽明手型은 수렴의 형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데, 손가락은 굵기의 차이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곧게 뻗고, 손끝은 뾰족해지게 되며, 피부의 윤택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33.7%).

6. 太陽手型은 다른 手型에 비해 가장 잘 양기가 응축된 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주먹부분의 주름들이 손목쪽으로 많이 밀려 있는 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적이다. 기욕이 발달하며 매우 부드러운데, 厥陰의 手型과 다른 점은 부드러움이 주가 되며 탄력은 떨어져 물살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18.4%).

7. 자기 주장이 가장 강한 집단은 태음형이었고 자기 주장이 가장 약한 집단은 태양형이었다( $p < .05$ ). 가장 즉흥적인 집단은 소양형이었고 가장 덜 즉흥적인 집단은 쥘음형이었다( $p < .01$ ). 가장 배려심이 높은 집단은 소음형이었고 가장 배려를 할 줄 모르는 유형은 소양형이었다( $p < .005$ ).

이상의 연구 결과, 각 手型에 따른 성격 特徵이 三陰三陽이 갖는 속성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IV. 參考文獻

1. 洪元植,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2. 洪元植,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3.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4.
4. 朴贊國, 黃帝內經素問注釋(上), 서울, 慶熙大學校出版部, 1998.
5. 尹暢烈, 三陰三陽에 관한 研究, 醫哲學, 大田,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2002.
6. 노승길, 手相學, 서울, 법왕불교대학, 1996.
7. 홍 정, 手相學的 秘密, 서울, 책만드는집, 1996.
8. 曹誠佑, 手相大典, 서울, 明文堂, 1993.
9. 韓東錫, 宇宙變化的 原理, 서울, 행림출판, 1985.
10. 白雲松, 手相秘訣, 서울, 明文堂, 1992.
11. 四方望洋 著, 鄭淳澈 譯, 手相獨習, 서울, 三元文化社, 1998.
12. 崔載忠, 天符經과 數의 世界, 서울, 한민족, 1986.
13. 曹誠佑 譯, 麻衣相法, 서울, 明文堂, 1996.
14. 朴贊國, 「傷寒論」三陰三陽에 대한 연구,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7, 서울, 大韓原典醫史學會, 1993.
15. 朴贊國,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9, 서울, 大韓原典醫史學會, 1995.
16. 이장호, 조성호, 정남운, 상담심리학의 기초, 서울, 학문사, 1999.
17. 김종우·황의완·이의주, 大韓身心스트레스學會誌, 제7권 제2호, 서울, 大韓身心스트레스學會, 1999, p20, 재인용.
18. Myers IB, McCaulley MH(tranlated by Kim JT, Sim HS, Je SB):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a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Seoul, Korea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1995.
19. Park HG, Lee HJ: A Study on the associations between Lee Je-Ma Sasang Constitution and G.G. Jung's Psychological Types, J Constitutional Medicine, 10(2):41-45, 1998.
20. Bales, R. F., Task roles and social roles in problem-solving groups. In E. E. Maccoby, T. M. Newcomb, & E. L. Hartley (Eds.),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58.
21. Comrey, A. L., & Lee, H. B. ,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 Hillsdale, NJ, 1992.
22. Friedman, M., & Rosenman, R. H., Type A behavior, New York, Knopf, 1974.
23. Goldberg, L. R. ,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9, 1990.
24. Goldberg, L. R., The structure of phenotypic personality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vol.48, 1993.
25. Kerr, S., & Jermier, J. M., Substitutes for leadership: Their meaning and measur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vol.22, 1978.
26. Norman, W. T.,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66, 1963.

27. Tabachnick, B. G., & Fidell, L. S.,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New York, HarperCollins, 1996.  
 28. Williams, R. B., Psychological factors in coronary disease, Epidemiological evidence, Circulation, vol.76, 1987.



### 附錄 1. 설문문항

아래에 나와 있는 문항들을 잘 읽으시고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하시는 정도를 다음의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여 주십시오.

0	1	2	3	4	5	6	7	8	9	10
전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지										동의한다
않는다										

1. 나는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2. 나는 사회적 관계에서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좀처럼 하지 않으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사소한 자극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3. 나는 대체로 꼭 참는 편이지만 한 번 폭발하면 잠시 필름이 끊어 진다고 할 정도로 감정이 폭발한다.
4. 술에 취하게 되면 감정이 쉽게 폭발하여 주사가 있는 경우가 많다.
5. 나는 사고가 논리적이 못하여 큰 고민이 있을 때도 논리성 없는 생각이 끊임없이 단절되어 일어난다.
6. 나는 계획성이 없는 편이라 일이 닥쳐야만 움직인다.
7. 나는 꼭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일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미련할 정도로 밀어붙인다.
8. 나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싫어하며, 여행을 잘 다니지 않는다.
9. 나는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하는 편이다.
10. 아주 친한 경우가 아니면 스킨십을 싫어한다.
11. 나는 즉각적으로 어떤 일에 뛰어들기보다는 일의 결과를 계산을 해 본 후에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12. 사회적 관계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급한 성격을 덜 드러내어 차분하다는 얘기를 들으나 가족관계에서는 급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13.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계획할 때 과정보다는 결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14. 나는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편이며, 좋고 나쁨의 표현 또한 분명한 편이다.
15. 남에 대한 감정적인 배려를 잘 할 줄 모르는 편이다.
16. 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고려보다는 어떤 일을 이루는데 초점을 둔다.
17. 내 편에는 남에게 배려를 한다고 하나 표현이 서툴러서 남들로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다.
18. 나는 내 주장이 한번 정해지면 확신있게 소신을 펴는 편이다.
19. 나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힘과 자기 주장이 강하다.
20. 나는 한번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는 참을성이 부족하여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21. 나는 목표를 정하면 처음에는 그 일에 전념을 하나, 지구력이 약해 일이 중간정도 진행되면 잡념이 많이 일어나서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22. 나는 어떤 일에 분명한 규칙이 있으면 일을 잘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을 하기가 어렵다.

23. 나는 국어 과목보다는 수학이나 과학처럼 분명한 답이 존재하는 과목을 선호한다.
24. 나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빠르나 중간에 지루함을 느껴 일의 결론을 잘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25. 나는 인간 관계에서 사람들과 처음에는 쉽게 친해지지만 관계가 오래 지속되다보면 상대에 대한 감정적 배려가 부족하여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26. 나는 내 주장이 강한 편이라 그것과 맞지 않을 때는 쉽게 화를 내지만 화를 낸 후에는 또 곧 바로 후회를 한다.
27. 나는 쉽게 망각하는 편이다.
28. 나는 일을 처리하는 데도 극단적인 경우가 많아 아주 열심히 하는 경우와 아예 하지 않는 경우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
29. 내 학교 성적은 기록이 심하다.
30. 나는 일을 할 때나 여행을 갈 때 혼자서보다는 여럿이 하는 것을 좋아한다.
31. 나는 독단적인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과 충돌이 잦은 편이다.
32. 나는 한가지 일을 끝내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바로 고민한다.
33. 나는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34. 나는 외향적인 편이다.
35. 나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36. 나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 선입견이 강한 편이다.
37. 나는 일을 계획할 때는 대단히 논리적이나 도중에 예기치 못한 큰일이 발생하면 손을 놓아버리고 방관하는 경향이 있다.
38. 나는 마음은 대범하나 행동은 대범하지 못한 편이다.
39. 나는 공상을 많이 하는 편이다.
40. 나는 내용보다는 화려한 외형에 마음을 끌리는 경우가 많다.
41. 나는 표현을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하나 남들이 볼 때는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것으로 비친다.
42. 나는 성격이 아주 급하여 속내를 바로바로 드러낸다.
43. 나는 몸과 마음이 항상 분주하여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편이다.
44. 나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지만, 또한 즉시 잊어버린다.
45. 나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
46. 나는 포용력과 이해력이 부족한 편이다.
47. 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망설임 없이 얘기를 하며 무리를 가장 앞에서 이끌려는 마음이 강하다.
48. 나는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을 좋아한다.
49. 나는 즉흥적인 경우가 많다.
50. 나는 일을 즉시 시작하는 편이지만 지구력이 매우 약해 시작한 하고 끝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51. 나는 일을 할 때는 일을 중요시하지 상대에 대한 배려는 많이 하지 않는다.
52. 나는 내가 중요시하는 일을 할 때는 매우 치밀한 편이고 인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53. 나는 남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정확함을 요구하나 스스로에게는 매우 관대하다.
54. 나는 현실적인 이득이 없으면 남에 대한 봉사와 희생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55. 나는 사람의 얼굴, 이름, 습관, 전화번호 등을 기억하는데 장점이 있다.
56. 나는 신경이 매우 예민하여 잠을 적게 자고 잠귀가 매우 밝은 편이다.
57. 나는 예민한 신경 때문에 의심이 많은 편이다.
58. 나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59. 나는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 있어서 부딪힘이 적다.
60. 나는 포용력이 많고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편이다.

61. 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며 다른 사람 일에 간섭을 잘 하지 않는다.
62.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배려를 잘 하나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하여 표현을 안 한다.
63. 나는 스스로 나서서 일을 만들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만들고 해결하려 한다.
64. 나는 삼삼오오 적은 수의 사람이 모였을 때는 여기 저기에 끼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만 많은 수의 사람이 모였을 때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65. 나는 내성적이고 과묵해서 소수의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66. 나는 참을성이 많은 편이다.
67. 나는 인간 관계에서 계산적이지 않다.
68. 나는 인간 관계에서 상대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미리 계산 하지 않고 상대의 행동에 따라 내 행동을 결정하는 편이다.
69. 나는 현실적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생각한다.
70. 나는 잠을 많이 자고 행동이 느리며 게으르다.
71. 나는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나 술에 취하여도 마음을 잘 드러 내지않고, 많이 취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잠을 자는 경향이 있다.
72. 나는 속으로는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지만 겉으로는 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73. 나는 나와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 질까봐 내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74.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무척 싫어하므로 싫은 사람에게도 표현을 잘 안 한다.
75. 나는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지만 인간 관계는 내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경향이 강하다.
76. 나는 일이나 사람에 있어서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다는 가깝고 멀고를 따진다.
77. 나는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맺고 끊음이 불분명하다.
78. 나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므로 미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데 기쁨을 느낀다.
79.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자료를 잡다하게 모아서 필요한 것을 취하고, 불필요한 것이라도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므로 버리지 않는다.
80. 나는 봉사에서 오는 기쁨을 중시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자주 한다.
81. 나는 사람을 사귄 때 선입관을 갖지 않고 관계를 형성한다.
82. 나는 겉으로는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지만 실재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내 자신을 좋게 드러내려한다.
83. 상대가 나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끼쳐 관계를 끊어진 경우에 다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어렵다.
84. 나는 현실적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이상적일 때가 많다.
85. 나는 내 생각이나 논리가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있으려 한다.
86. 나는 밖에서는 매우 절제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이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87. 나는 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는 편이다.
88. 나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편이다
89. 나는 자기주장이 약한 편이다.
90. 나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현

한다.

91. 나는 마음에 상처를 입더라도 즉각적인 표현은 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삭이는 편이다.
92. 나는 싫은 사람에게 대놓고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93. 나는 참을성이 많은 편이지만 너무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해질 때가 있다.
94. 나는 평상시는 자기 주관을 내세우지 않지만 한번 소신을 세우면 황소고집이라 할만큼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 끝까지 바꾸지 않으려 한다.
95.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다.
96. 나는 일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다.
97. 나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내 욕심을 잘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여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98.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도, 다른 생각으로 인해 시작을 바로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귀하의 생년월일은? ---- 년 --월 --일

성별은? 남 여